

자기를 바로 봅시다

심리 상담을 보지 말라
남이 했던 말은 상한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을
개으물만큼 보라

김구의 법구

~법구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년
불교미술전시관

시립미술관 못지않게
작품 수량도 풍부하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용사·불교대학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이 개인 주의를 확산시키고 가족애와 사회공동체 의식을 왜곡시킬 것이라 일부 우려와는 달리 공동체 연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족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기적 자리 잡고 있으며, 수



인터넷시대 딱따구리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기

많은 동호회 사이트가 사이버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크게는 인터넷상의 '한민족 공동체'를 비롯 아 파트단지 사이버 공동체, 사회봉사 동호회, 국악 동아리, 대안교육모임, 대머리동우회, 취미·동창회 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주제로 사이버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집단화되면서 현실사회에서도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내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21세기 혁명적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성에 의한 언어 폭력과 사이버 테러 등 부정적 면을 극복한다면 민족과 인종, 종교를 넘어선 지구촌 공동체 의식의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한다. 흔히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은 'C'로 요약된다. 특히 이종 공동체(Community)는 내용을(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를 위한 기본토대가 된다. 불교계도 늦은김은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내일이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가상공동체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곳으로부터 불교문화, 문화재, 수행법, 사찰답사, 불교미술, 불교경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불자들이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신명 및 사이버포교 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신앙을 넘어선 문화사업과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불교동호회 차원에서 한단계 나아가야 한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회계번호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30-943

농협 : 069-01-23823

계좌번호 : 불교방송

“경내지 편의시설 건축 불허 국토이용법 개정 시급”

전사법 시행령선 허용...지자체 자의적 해석 '불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포교와 신도교육 등 불교활동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토이용관리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찰 경내지에서의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종교용지에 한정하고 있어 전사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불교용품 판매소, 전동다인, 각종 편의시설의 운영을 막고 있다. 전동다인 등을 포함해 대다수의 사찰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있고, 경내지 가운데 종교용지로 분류된 곳은 대웅전 등 주요 전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차로 분류돼 있다. 또 종교 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국토이용관리법을 무시하고 건축 허가를 해줄 리 없다. 따라서 지목 변경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찰은 경내지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결론이다. 조계종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받는 사찰은 1천5백여 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부 사찰에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지켜야 하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 포교와 신도교육 등 불교 고유의 활동을 계속하고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의 한 스님은 "신도와 탐방객의 증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불가피한 사찰이 많다"며 "사찰소유 경내지의 대부분이 임야인 현실을 국토이용관리법에 반영하지 않아 불법건축을 유도하는 결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이 현실을 무시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불교활동을 제한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반불교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용문사는 최근 일주문 부근에 불교용품점과 유물전시관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양평군의 건축불허로 신축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경북달성



남녘의 동백꽃 손님이 날리고 꽃샘바람 불지만 동백꽃은 붉디 붉은 열정을 내뿜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꽃지락을 풀고, 새싹이 돋기 시작한 숲속으로 가면 삶의 희망을 만날 수 있을 듯 하다. 진도 생계사=고영배 기자

남녘의 동백꽃

진각종 대표단 5월경 2차 방북

조불련, 천태종에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요청

조단협의회와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대표단은 12~15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 불교도연맹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진각종 대표단은 14일 조불련 대표단과 접촉을 갖는 자리에서 진각종 대표단 6명의 공식방북을 요청하는 조불련 반대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 받았다. 이에 따라 진각종 성조 불리인장과 일정 교육원장 등 대표단이 5월말 또는 6월초 북한을 공식방북할 예정이다. 조단협의회 대표단으로 참가한 사무총장 홍파스님과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조불련측에 남북한 불교계 공동토론회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이와 관련 법현스님은 "조불련이 토론회의 주제를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로 하고 권고, 시기는 추후 준비를 진행하며 연락하자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조불련은 또 천태종 대표단에 천태종 항종주인 의현스님의 출가사할인 개성 영통사 복원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복궁과 조불련은 11일 북경에서 만나 부처님 오신날 남북동시법회와 공동발원문 채택에 합의했다. 조계종은 조불련과의 회동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청

조계종 총회 '만장일치' 종단화합 기여할 듯

통도사가 총림 해체 6개월여 만에 영축총림으로 재지청됐다. 조계종중앙총회(외장 방등)는 14일 제21회 77명 가운데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146회 임시총회를 개최, 첫날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청, 불기 2544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 통과, 조계종-대학학 협의회 합의문 인준 등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2·3면>

영축총림 재지청과 관련 총무원장 장대스님은, 안전 상징 제안설명을 통해 "일하스님이 집행부의 뜻에 따르고, 분규에 개입하지 않으며, 율하스님 명의의 각종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며 "종단의 화합을 위해 영축총림을 재지청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회의원들은 찬반토론을 거친 후 만장일치로 통도사의 총림 재지청을 결의했다.

통도사는 그동안 정화개혁회의의 중심사찰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에 총림으로 재지청됨에 따라 종단의 화합분위기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한·중 불교문화전 교환 개최

중단협-중국불교협 '합의'

중단협의회(회장 장대)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조박초)는 15일 북경 공제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두 나라 불교문화전을 교환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과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등 중국불교협회 부회장과 장대스님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국불교협회는 사진전을 포함 양국의 불교문화를 소개 하는 전시회를 갖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중단협의회 대표단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자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 총무부장 회장 대정사는 중국불교협회의 중국 유학생의 한국파견시 협조를 당부하며, 대위대학에서 장학금과 매일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예산안 정보공개 '논란'

재가연대-기획실

재가연대의 조계종 예·결산에 대한 의견 발표와 관련, 중앙총무청 정보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가연대(상일공동대표 박공서)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의 지난 해 결산과 올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자, 조계종 기획실(실장 지인)이 11일 재가연대의 의견 발표에 대해 "그 취지가 어떻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총무청 정보공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기획실은 재가연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상의안 실의중에 유출되고 언론을 통해 남남이 공개되고 심의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니, 추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총무기관의 예산안은 기획실에서 입안, 총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총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은 물론 중앙총회 사무처도 예산안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예산 증감을 요구하는 루비 때문이다. 그런데 심의자료가 재가단체의 손에 들어갔고, 여기에다 지난 해 중단사태에 따른 호법비가 포교원의 결산에 12억4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24억여원을 지출한 것을 자세히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재가연대는 15일 기획실의 유감 표명에 대해 "열린 총무 행정을 통해 대중참여의 길을 넓혀야 하며, 예산안을 총회에서 심의, 확정하기 전에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재가연대는 이어 "심의과정에서 재가연대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 중단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었다"며 예산안 검토의견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실장 지인스님은 18일 "종단협정에 관련된 정보공개는 철저히 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우선 중단 자원의 인단을 구성할 때 재가단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중앙총무청 정보공개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이후 정보공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만나는 순간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ARS, Web Site를 통해 생생한 현물정보만을 찾아주는 곳!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 지금 코데콤으로 오십시오! 코데콤을 만나는 순간 희망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초 급매물 부동산 전시장
ARS : 700-3894 / www.speedland.co.kr

결혼 배우자 정보 센터
ARS : 700-2154 / www.kowedding.com

특허 기술 정보 판매장
ARS : 700-8446 / www.tech1472.co.kr

3월 28일 GRAND OPEN

KODA.com과 함께할 불자가족을 찾습니다

지역 Consortium 관리지사모집

지역 Consortium이란?

제반 설비 및 프로그램, 광고, 기획 등 일체의 경영 제안을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수행하며, 매월 일정금의 매출 저보금을 본사에 입금하여 기업운영에 대한 광고 및 개발 재원을 전국 Consortium간 공동 추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써 독자적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온라인 경영 기법입니다.

본업은 재투자 및 생산비를 요하지 않는 고수익 첨단사업으로 관리능력만 있으면 은퇴자 및 부녀자의 첨단 고수익 부업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 모집지역 :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청주, 전주, 원주, 대전, (전국 8개소)
- 모집자격 : 금융거래에 하지않는 지역 유저로 순 자기자본 2000만 이상 가능자.
- 월 수익 : 운영 3개월 이후, 광역시 이상 지역은 최하월 1500만원 이상 보장함.

Minimum Recall제 운영 : 국내 최초로 지사 운영에 대한 최소 수익성 상호 보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 수익성이 미흡할 경우 지사운영을 본사에서 적정가로 책임 Recall하여 인수하며, 또한 지사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소기의 수익 창출에 부적합 할 경우 본사에서 임의 해약을 요구하는 쌍방 권리보장 제도입니다.

함께 일할 가족!

우리 회사는 ARS 및 Web Site를 통한 정보유통과 Program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제 막 출발한 불자 도반이 설립한 조그만 회사입니다. 아직 회사의 조직과 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장래성과 기업성은 후회 절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불심 깊은 불자가족을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도반님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찾는 사람 : 1. Web 관계 Programmer, Designer, Projecter (초보 or 경력자).....0명
2. Ip Programmer 및 Operater. (초보 or 경력자).....0명
3. 기획, 총무, 관리, 비서, (년령 성별 불문).....0명
4. T/M. 주부 영업사원. (38세 미만 주부로 PC 초보자).....00명

▶ 각종 공히 불자가족으로 3.4항은 PC운영에 초보자도 가능함.
▶ Copy Writer 및 Project 기획에 자질 있는 분 특색함.

문의전화 : 02)364-6181

KODA.com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3